

옛 광주교도소에 문화교육·창업 공간 조성

정부, 전국 빈 교정시설 11곳
공공주택·창업타운 등 활용
5·18 사적지 포함된 광주
민주·인권 기념파크 추진 주목

정부가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광주교도소 부지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비어있는 교정시설 11곳에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포함된 옛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유휴 교정시설 활용 발표가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끝나거나 이전 예정인 1만㎡ 이상 국유지 60곳 중 11곳, 여의도 2.4배 면적인 693만㎡ 상당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교정시설부지(10만7000㎡)를 비롯해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만㎡), 남양주 군부지(24만㎡), 원주군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11곳이다.

개발 필요성이나 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추진 용이성, 지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7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9조원을 유치해 투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2000호를 포함해 3만1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또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6만㎡는 첨단산업과 창업벤처 타운으로 조성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든다. 창업벤처 입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이나 창업지원 주택 1100호도 공급한다. 실버타운도 개발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나 문화공간을 공급하는 한편, 스마트 시티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시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손혜원 “100억대 컬렉션 목포시·전남도에 기증”

목포 폐공장서 기자회견

“목포서 떠나지 않고 살겠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23일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 목포의 폐 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전칠기박물관을 위해 모았던 17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100억원 정도 되는 컬렉션을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보급 가치가 있는 나전칠기 작품은 국립박물관에 내놓고 그 이외

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면서 “단 목포시와 전남도의 태도를 봐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손 의원은 “의원 임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또 하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제가 떠나길 바라는 목포 읍에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나아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자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 할 것이다”고 명료하게 답했다.

또 그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한 질문에는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고 답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안 걸려도 국회의 원으로서 다른 이익이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며 “현재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물 16채를 매입하겠다고 하니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문체부가 산다는 것은 급시조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며 “시세차익이 3억원 남으면 그분(나 원내대표)이 먼저 사시지 않았겠나, 그 분야 전문가니까”라고 주장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인권기념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국유지 개발로 2028년까지 37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건설 및 연관산업 일자리 20만5000개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모독한 사람들 그대로

한국당,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차기환 낙장 접수
적격성 논란 계속 … 진상조사위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자 명단을 뒤늦게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의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여 만에 추천자 명단을 확정했지만 이후 일주일여만에 공식으로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문으로 받은 추천 명단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친 뒤 국방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추천 위원이 특별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와 공무수행을 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청와대로 인사자료를 남기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조사위가 구성된다.

문제는 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이 정상적으로 결재를 할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을 할지 여부다. 일단 문 의장의 경우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결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문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가 특별법 상의 자격요건(7조)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전공대 후보지 6곳 오늘 실사 … 28일 최종 선정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24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23일엔 서울 한전공대 용역사 사무실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3곳씩 제출한 후보지 6곳에 대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이 열렸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후보지 실사가 24일 오전 광주지역 후보지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 북구 첨단3지구 실사에 이어 10시35분 남구 예너지밸리 산단 그리고 11시30분에는 송촌보 현장에서 실사가 각각 진행된다. 오후에는 1시30분 나주 부영CC를 시작으로 산림자원연구소 등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어진다.

이에 앞서 23일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3곳의 후보지에 대해 30분 발표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30분 동안 답했다. 심사위원

회는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총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PT 참석자도 지자체별 3명으로 한정했다.

최종 선정된 부지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는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역사의 한전공대 부지심사위원장이 각 지자체 1순위 후보지 중 2곳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공개 보고하고, 회의를 끝내면 심사위원장이 공개발표할 예정이다. 한전공대 부지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탈락한 지자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단체장의 참석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3만원 이상



종합 6호
30,900원



종합 7호
35,900원



종합 8호
40,900원



러함빛 토탈솔루션
36,900원



프레시팝 베이직세트
39,900원

•3만원 이하



종합 1호
9,900원



종합 2호
13,900원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혜택**은 아래 영업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